

# 농장서 식탁까지 신뢰받는 생산·유통체계 구축

### 전북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 및 유통활성화 위해 3개분야 104억원 투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 관련 3개 분야 12개 사업에 104억원을 투자한다고 2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4개 사업 43억원 △축산물 유통 활성화 3개사업 3억원 △투명한 유통체계 구축 및 위생·안전성 강화 5

개 사업에 58억원을 투자한다.

농장에서 생산·판매·유통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축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추진하며, 특히 2024년 12월, 2025년 1월에 식육가공장과 식육포장처리업체의 해썬(HACCP)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해썬(HACCP)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통한 가격 안정 도모와 축산물 브랜드 홍보를 통한 판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소비자가 뽑은 안전관리 최우수 도축장 선정을 위해 도축장 해썬(HACCP) 운용 점검을 강화하고 축산물 안전·위생 취약부

야 집중관리를 위해 월별·하절기·명절 성수기 등 시기별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단계별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와 축산농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 봄철 소나무재선충병 본격 방제 추진

### 고사목제거, 예방나무주사 동시 시행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말까지 2024년 봄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등 방제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으로 총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번 설계용역 결과와 드론에찰로 확인된 고사목 등 감염목 2,000본을 포함한 2만3,000여본의 방제 대상목이 확인돼 매개충(솔수염하늘소) 우화 시기 전인 3월 말까지 방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말까지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의 헬기를 활용해 도내 9개 시·군 14만6,000ha에 대한 항공예찰을 완료했으며, 예찰 결과로 발견된 고사목에 대해서는 2월 중 지상정밀예찰 및 검경을 실시해 3월 말까지 추진하는 방제사업에 포함해 적기에 모두 제거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산림 병해충에는 방제사업뿐 아니라 사전 예찰이 매우 중요하며, 14개



전북특별자치도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등 방제작업에 돌입한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시·군에서는 올해 2월부터 총 52명의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채용해 소나무류 고사목 예찰과 시료 채취, 기타 산림병해충에 대한 지상 방제 등, 도내 산림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위해 적극 활동할 예정이다.

장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심각하였다. 재선충병 확산의 큰 요인 중 하나인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과 반출을 막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 민·관 합동 설맞이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 관련 단체 등 100여명과 합동으로 수산물종합센터 일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시 및 민간안전 관련 단체 등 100여명과 함께 합동으로 수산물종합센터 일원에서 지난 2일 설맞이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에 이어 겨울철 화재 예방과 안전신문고 활용 방법 등 안전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안전하세요?’ 캠페인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도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실시해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기, 계절에 맞는 안전위험 요인을 선정해 14개 시·군 및 민간단체와 안전문화 활동을 강화해 도민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을 개선하여 나갈 계획

이다.

노형수 안전정책과장은 “겨울철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행동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도민의 의식개선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김재훈 기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 전북자치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등 대상 1인당 48만원 구매 지원... 에코이몰·주민센터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온라인 에코이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도는 임산부에게 좋은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에게 판로를 제고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500여 명 대상, 12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부로서 신청 이후 에코이몰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검증결과 임신부로 확인됐거나 또는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신부로 올해 12월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에코이몰(www.ecoemall.com)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신청서와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품목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며 한우·유정란·돼지고기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품으로 공급한다.

지원조건은 임신부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지원하며, 이중 20%인 9만6,000원(20%)은 자담으로 부담해야 한다. 1회 주문 한도액은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10만원 이하지만 자담을 할 경우 초과해 구매할 수 있다.

공급업체는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GAP),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HACCP) 등 안전성관리 위생조건을 갖추고 공모심사에서 선정된 공급업체가 도내 임신부들에게 직접 배송할 계획이며, 4월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신청서와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조건은 임신부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지원하며, 이중 20%인 9만6,000원(20%)은 자담으로 부담해야 한다. 1회 주문 한도액은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10만원 이하지만 자담을 할 경우 초과해 구매할 수 있다.

공급업체는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GAP),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HACCP) 등 안전성관리 위생조건을 갖추고 공모심사에서 선정된 공급업체가 도내 임신부들에게 직접 배송할 계획이며, 4월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부로서 신청 이후 에코이몰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검증결과 임신부로 확인됐거나 또는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신부로 올해 12월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하는 에코이몰(www.ecoemall.com)을 통해 온라인

## 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89농가에 4억4500만원 지원

### 2023년 가격 하락 ‘마늘, 가을무’ 2개 품목 설 명절 전 지급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2023년 품목별 기준가격을 확정하고 지난해 시장가격이 하락한 마늘, 가을무 2개 품목을 출하한 농업인 89농가에 4억4,500만원을 지원한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농진청 발표)와 유통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표)가 지난해 12월말 최종 발표된에 따라 올해 1월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별 기준가격과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마늘은 2022년 11~12월, 가을무는 2023년 8~9월에 농가가 신청한 물량 중 2023년 품목별 주출하기(마늘 7월 1일~8월 31일, 가을무 10월 29일~12월 10일)에 출하계약한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이나 지역농협에 출하를 이행한 물량에 대해 마늘은 kg당 833원, 가을무는 kg당 247.2원을 지원한다.

품목별 세부내역은 ‘마늘’ 69농가에 2억6,500만원, ‘가을무’ 20농가 1억 8,000만원을 품목별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군과 협조해 설 명절 이전에 농업인에게 지급을 완료하여 영농준비 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며, 대상품목의 주 출하기 동안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2016년 최초 사업 시행 이후 올해까지 2,458농가에 94억원을 지급했으며, 재해보험과 더불어 도내 농업인들을 지키는 농업 현장의 안전망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